

물고기의 축제



작 • 유미리
연출 • 이성규
공연 • 부두연극단

“ 천재작가 재일교포 유미리 대표작
기시다 희곡상 수상 ”

협찬



이 공연은 문예진흥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됩니다.

1차
공연

시민회관 소극장

'98. 10.24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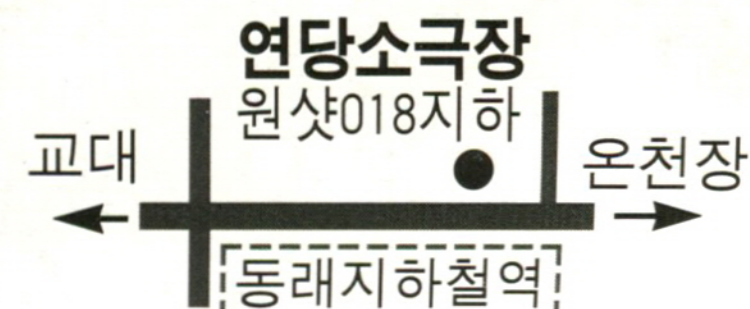
평일 4:30, 7:30 토/일 4:00, 7:00

2차
공연

연당소극장

'98.11.15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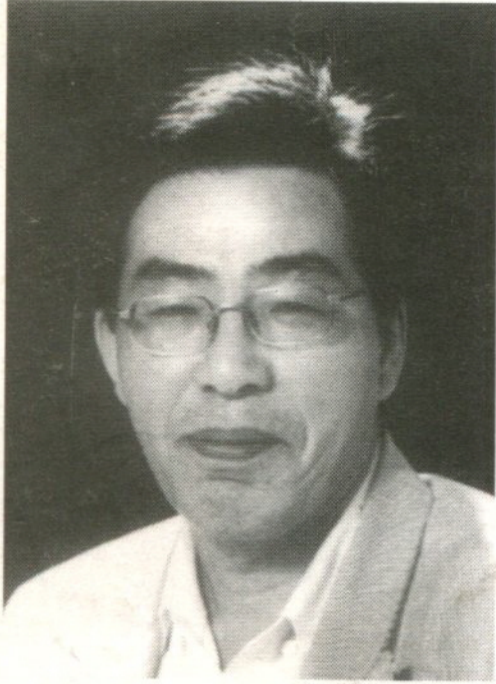
평일 7:30 토/일 4:00, 7:00



문의 556/2232

월요일은 공연이 없습니다

연출의도



연출 / 이 성 규

잔잔한 일상을 연극적 상징으로 빚어내는 大家로 우리는 안톤-체흠을 떠올린다. 재일교포 “유미리”의 「물고기의 축제」는 체흠과는 다르지만, 일상의 섬세한 부분이 놀라운 삶의 reality를 획득하는 매력이 있는 작품이다.

그녀의 자전적인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일견 매우 혼란스럽게 삶의 고통을, 부조리를 펼쳐 보여주면서도 ‘사랑의 힘’이라는 삶의 축복을, 희극적으로 관조하는 格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네 장례식이 소외된 인간들을 큰 삶의 물결속으로, 용서와 화해의 廣場으로 나아가게 하는 亂場이며 祝祭임을 다시 환기시켜 준다.

〈작품마다 다른 저마다의 독특한 형식찾기〉, 〈삶을 총체적으로 새롭게 들여다보기〉 ...

「부두 연극단」의 상연목록에 물고기의 축제가 선정된 이유이지만, 어떤 느낌으로, 어떤 내용으로 관객에게 가 닿을지... 열심히 해야 할 뿐이다.

작가소개



유미리(柳美理)

“
나는 쓰고 싶다.
내가 쓴다면 이것을.
이런 세계를 써야 된다.
쓰지 않으면
숨 쉴 수가 없다.
”

재일교포 2세로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유미리의 삶은 불행했다. 일본 사회속에서 재일교포들이 겪는 소외와 정체성 혼란, 붕괴된 가족관계가 주는 갈등은 그를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노름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못했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밤이 되면 진한 화장과 야한 옷차림으로 카바레에 일하러 나갔다. 가족의 와해로 인한 정체성 위기와 상실감이 증폭되면서 그는 세상과의 부조화를 겪게 된다. 남달리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는 그런 현실을 견디지 못해 언어장애와 같은 자폐증상을 보였고, 여러번의 자살을 시도했다. 가정과 학교로 부터 소외되면서 그는 책을 읽지 못하는 아버지가 장식용으로 마련해 놓은 세계명작전집이나 희곡집을 읽으며 현실로 부터의 도피를 꾀한다.

그는 고교 1년때 다른 학생들에게 폐가 된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후 자살을 다룬 <키드 브라더즈>의 연극에 심취하여 입단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작가가 쓴 대사를 감정을 넣어 말하는 것에 위화감을 느낀 그는 극단을 그만두고, 직접 극단 「청춘오월당(靑春五月黨)」을 결성하여 자신의 삶을 토대로 자전적인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그 당시 “당신에게 있어 연극은 무엇입니까?”라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 그는 “장례식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무언가를 매장시키기 위해 또는 죽을 수 없었던 자신을 연극중에서 살해하고, 애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쓰고 싶다. 내가 쓴다면 이것을, 이런 세계를 써야한다. 쓰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는 자신속에는 쓰지 않으면 앓되는 ‘드라마’가 있으며,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자신을 매장하려한 현실, 즉 ‘학교’와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후 8년간에 걸쳐 가족과 죽음을 테마로 한 10편의 희곡을 썼으며, 희곡<물고기의 축제>로 1993년 스물다섯의 최연소 나이에 일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희곡 「기시다 구니오 희곡상」을 수상했다. 그 외의 희곡작품으로는 재일한국인의 불우성을 다룬 <해바라기의 죽음>과 <정물화>, <GREEN BENCH>등이 있다. 이어 그녀는 가족의 재회를 꿈꾸며 집을 짓는 아버지를 소재로 한 첫 소설집 <풀하우스>로 일본의 권위있는 문학상인 제24회 「이즈미 교카상」과 「노마분게 신인상」을 연달아 수상했다. 제113회, 제114회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아쿠다가와상」후보에 올랐으며, 1997년 중편 <가족 시네마>로 제16회 「아쿠다가와상」을 수상함으로써 일본의 유명 문인의 반열에 올라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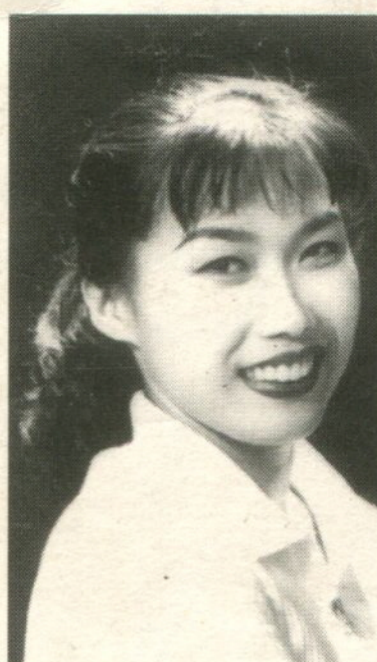
C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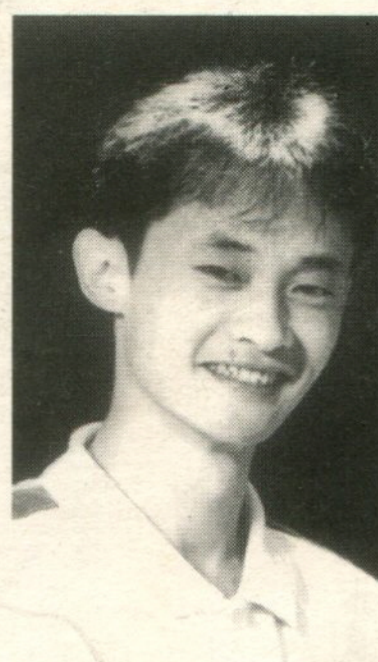
박정자 / 김 미 경



김윤석 / 최 재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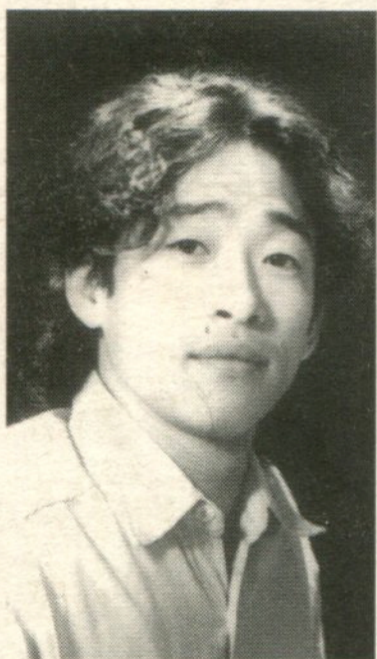
김유리 / 손 경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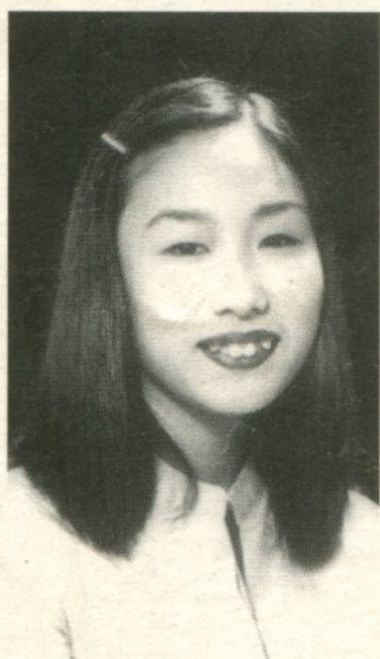
김기태 / 하 현 관



김유미 / 최 수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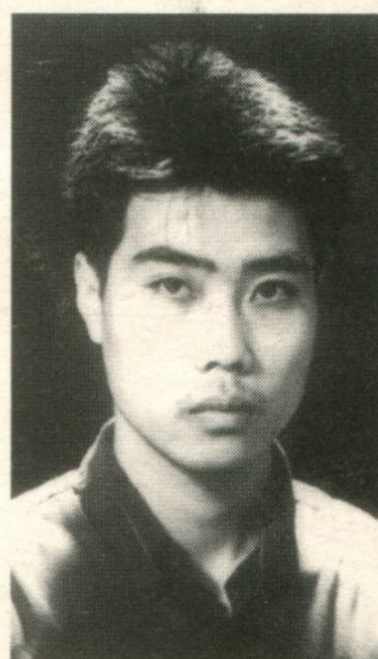
김기훈 / 오 세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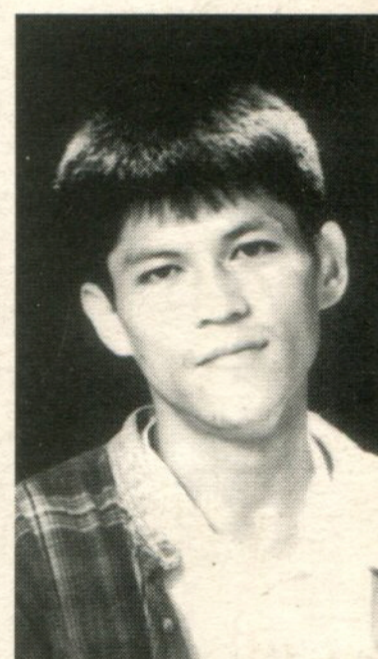
한수정 / 송 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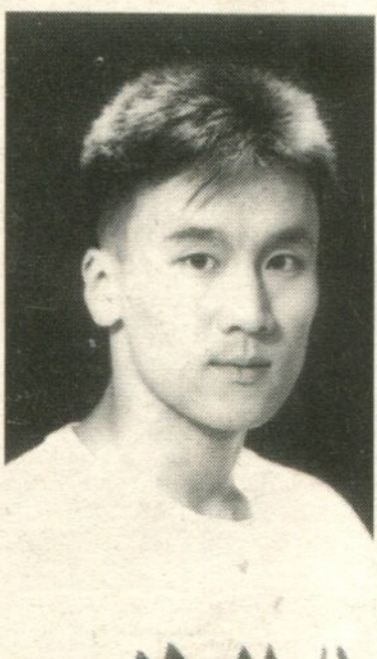
할머니 / 이 주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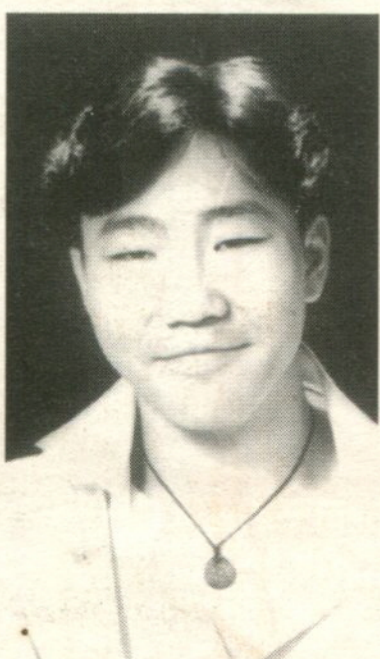
삼촌 / 천 세 현



오정달 / 류 영 운



장 의사 / 장 영 섭



수박장수/박 상 민



조문객 1 / 김 혜 숙



조문객 2 / 류 란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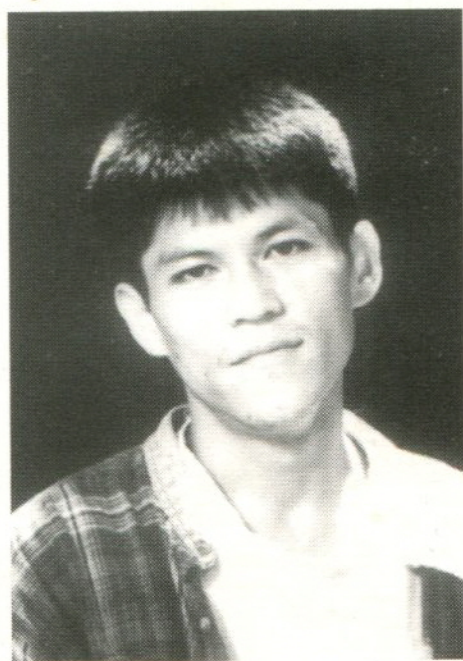


조문객 3 / 신 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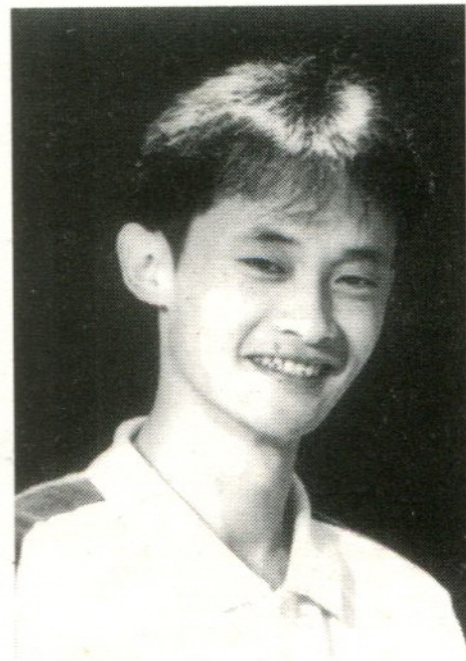
STAFF



기획, 조연출 / 김 정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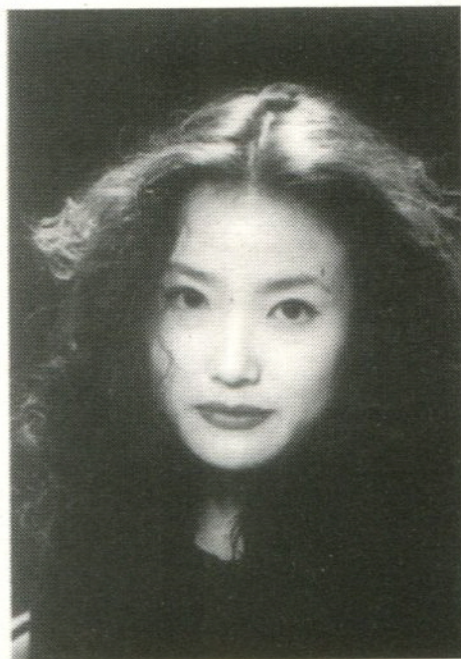
무대감독, 조명 / 류 영 운



무대장치 / 하 현 관



소품 / 김 혜 숙



분장 / 엄 지 영

음악 / 이 반

무대미술 / 권 재 연

소품 / 신 은 하

뿔뿔히 흩어져 살던 가족들은 막내 기훈의 갑작스런 죽음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노름에 빠져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무능함과 생계를 위해 밤이 되면 카바레에서 일하던 어머니의 불륜으로 가정은 붕괴되었고, 서로의 갈등과 소외속에서 수년간 가족 상호간에 아무런 유대관계 없이 살아왔다.

어색하게 모여든 가족들은 기훈의 일기를 통해 그의 죽음이 가족의 재회를 위한 계획적인 자살이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 동안 각자의 삶이 얼마나 소외되고 힘겨웠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가족에 대한 절실한 사랑과 그리움의 반어적 정서였음을 깨닫게 된다. 기훈의 장례식은 그가 의도한 대로 가족의 사랑이 회복되고 서로 화해하는 축제의 장이 된다.

작품 줄거리